

제5절 수산리(守山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수산리(守山里)에 속하는 비래동(飛來洞)과 염전동(鹽田洞)이 있고 동해에 접하고 있으며, 서쪽은 금산(錦山) 지맥(支脈)이 마을 뒷산을 이루고 있다. 남쪽은 왕피천이 동해로 흐르고 있으며 북쪽은 2km 거리에 군 소재지인 읍내리가 있다. 마을회관은 2015년에 개축되었다. 울진군의 친환경농업을 주도한 왕피천생태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 망양정을 잇는 왕피천케이블카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



<그림 3> 왕피천케이블카

2. 마을의 역사

왕피천을 수산천(守山川)이라고도 하였는데 천변(川邊)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수산리(守山里)로 불렸다. 이곳 수산리 마을 동편에는 왕피천을 끼고 울창한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이 숲은 마을의 허(虛)한 곳을 막기 위해 조성한 ‘수(藪; 숲)’이며, 비보풍수(碑補風水)의 하나이다. 왕피천 물이 범람할 때 강변석산(江邊石山; 독뢰산)이 급류(急流)를 막아 마을의 침수를 면하였다고 전한다. 울진군이 지난 2003년 이곳을 친환경농업엑스포공원으로 조성하여 동해안의 친환경농업 발상지로 가꾸었으며 2020년 이곳을 왕피천생태공원으로 명칭을

개칭해 운영하고 있다. 망양정과 이곳을 연결하는 왕피천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다.

1) 비래동(飛來洞)과 염전동(鹽田洞)

비래동(飛來洞)은 비래봉(飛來峰) 밑에 촌락이 형성되어있으며, 이 비래봉은 본래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호산리에 있는 해망산(海望山)이 반(半)으로 갈라져 바다로 떠 내려와서 이곳에 비래봉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염전동(鹽田洞)은 고려 때부터 염전(鹽田)이 있었으므로 부르는 마을 이름이다.

2) 정수동(井水洞)

1988년에 염전리(鹽田里)에서 9가구가 집단이주하여 사는 신설(新設) 마을이다.

3. 가구 분포

총 163세대가 거주하며 우계 이씨(羽溪李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등이 분포한다.

4. 마을의 특징

1) 염전터(鹽田址)

고려 때에 울진포(蔚珍浦) 백사장(白沙場) 일대가 염전(鹽田)이었다 한다.

2) 울진의 굴참나무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수령 330년의 굴참나무이다. 높이 20m, 가슴높이 둘레 6m이다. 가지 길이는 동쪽으로 8m, 서쪽으로 8m이다. 지상 3m에서 동쪽으로 첫 번째 가지가 나오고, 지상 6m에서 크게 두 가지로 넓게 갈라진다. 전설에 의하면 성류봉의 굴참나무는 신라 의상대사[625~702]가 심었다고 한다.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는 매우 크고 오래된 나무로 생물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높아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96호로 지정되었다.

3) 울진포(蔚珍浦)

왕피천과 남대천이 합류(合流)되는 곳은 과거 포구(浦口)였으며 지금은 친환경 벼재배지로 조성되었다. 흰 모래(白沙)가 쌓여 갈라져 있다. 조선 때에는 수군(水軍) 만호(萬戶)가 성(城)을 쌓고 주둔한 곳이었다.